

순창군, 관광객 유치 '신호탄'

섬진강 구름다리 내년 7월 완공 예정

순창군이 민선 7기 4대 관광자원개발 프로젝트로 추진중인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이 지난 7월 착공되면서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인 신호탄을 알렸다.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은 68억 원을 투자해 직선면 체계산 중턱 75~90m 지점에 270m 길이의 구름다리와 산책로,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착공해 내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19일 직선면 사업 현지에서 사업 안전과 무재해, 근로자의 건강을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를 열었다. 이날 기원제에는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해 정성균 군의회 의장, 시공사, 지역 마을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군이 추진 중인 구름다리는 평균높이 83m, 길이 270m로, 그동안 국내에서 가장 긴 구름다리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마장호수 출렁다리 220m보다도 50m나 길다. 또다른 현수교인 소금산 출렁다리 200m, 갑악산 출렁다리 150m보다 길어서 국내에서 가장 긴 현수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에 개통한 파주 갑악산 현수교 관광객이 연간 80만명에 이르고 있는 현 추세로 볼 때 국내에서 가장 긴 현수교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게 되는 섬진강 구름다리는 군이 목표로 하는 500만명 관광객 유치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은 한해 100만명을 유치할 수 있는 대표 관광지가 될 것"이라며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농산물 판매소, 지역인력 활용 등 다각적인 활용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추석명절 효심 민심살피기 나서

노인복지관 효나눔 사회복지시설 방문 소외된 이웃 위문

심 민 임실군수가 추석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민심행정과 어르신들을 위한 효심행정으로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심 군수는 19일 임실군 북부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르신 120명과 함께 하는 효나눔 큰 잔치에 참석했다. 심 군수는 이날 로템하우스와 사랑요양원 등 4개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두루 방문하여 시설 이용자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며 위로했다. 심 군수는 "임실군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해 민심행정과 효심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행정을



심 민 임실군수가 추석명절을 맞아 효심행정을 펼쳤다.

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사회

각계 각층에서 더 많은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임실=진홍영 기자

양희재 남원시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대책을 강구'

시의회 정례회 5분발언

남원시의회 제 225회 정례회 제 3차 본회의에서 양희재 의원(사진)은 5분 발언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대책을 강구하고 대형차량으로 부터 시민이 안전한 남원 만들기에 대해 방안을 물었다. 우선 양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에 대해 그동안 동



료의원들이 수차에 걸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촉구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도시 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부담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받은 토지에 대해 해당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가 제한됨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을 받게 되며, 1963년도에 도로로 최초 결정된 후 50년 이상 경과한 미집행 구간의 경우 시민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는 행정의 갑질이 아니냐고

질책했다. 양 의원은 남원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유원지 등으로 지정된 총 241건 중 미집행 건이 129건으로 5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109건, 45.3%에 이르고 있어 구체적인 집행 계획 마련이 시급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토지소유주 중 매각 의사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매입 보상금 예산을 확보해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민들이 추석을 맞아 풍성한 명절을 나눈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풍성한 추석명절 보내세요

남원시민 사랑 나눔 잇따라

남원시민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주민복지과가 지난 3일부터 펼치고 있는 풍성한 명절을 만들기 위해 펼치고 있는 나눔 캠페인에 단체, 기업,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하고 있다. 전북 지리산 낙농농협합동조합은 18일 저소득층을 위해 쌀 25인분을 300만원의 기탁했다. 한 돈협회도 돼지고기 660kg(400만원 어치)을 기부했다. 또한 매년 이웃돕기를 실천하고 있는 정형국 부림식재 대표는 백미 50포(20kg, 200만원 어치)를 관내 경로당과 생활이 어려운 이웃 등에 전달해 달라며 동동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인원면의 소재봉 흥부물 남원추어탕 대표(한국외식업중앙회 전라북도지회남원시지부장)도 18일 인

원면사무소에 백미(10kg) 31포(86만원 어치)를 전달했으며, 소 대표는 23년째 명절 및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지역주민을 위해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곡성지점(지점장 장세복)은 18일 수지면사무소에 50만원 상당의 후원품(고기 25인분)을 기탁했으며, 왕정동 주민자치위원(위원장 남기섭) 20여명은 17일 우리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마, 발 마사지를 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남원시 죽향동발달협회,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은 요천로 일대 공중화장실, 십수정 주변에서 쓰레기와 담배꽂이를 수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개장

순창군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강천산휴게소 광주방향에 이어 대구방향에도 개장해 순창군 농가 소득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개장한 순창군 대구방향 행복장터 로컬푸드는 한국도로공사와 강천산휴게소 위탁운영업체(주)원일유통의 협조로, 오는 20일 임시 오픈할 예정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대구방향 행복장터를 열 수 있도록 승인해준 한국도로공사와 (주)원일유통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면서 "전국 휴게소 중 모범적인 행복장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우리군 생산자의 소득창출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강천산휴게소 대구방향에 순창발효커피매장을 설치할 것을 (주)원일유통과 협의중이며, 확정되면 순창발효커피의 본격적인 시장 진출이 기대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보건소, 식품 등 추석 감염 예방수칙 강조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추석 명절기간 동안 가족·친지간 교류, 여가·단체활동 등 식품으로 인한 감염병과 성묘,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은 명절기간 상온에 장시간 노출되어 부패될 수 있는 음식 등의 공중섭취 등에 의해 집단발생이 된다며, 예방을 위해 흐르는 물에 30초이상 비누로 손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먹기, 물은 끓여마시기,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을철(10~11월)은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많이 증가하는 시기라며, 성묘, 농 작업 등 야외 활동 시에는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귀가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 당부했다. 특히, 고열, 두통, 설사, 복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신속한 검사 및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의회 정례회 폐회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은 19일 본회의장에서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실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0일간 진행된 제282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제8대 군의회 출범 후 맞이하는 첫 번째 정례회로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임실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하고, 신대용 의장은 "네 돌을 맞이하는 임실(너치즈축제가) 전국적인 명성으로

발돋움하여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도약해 나감은 물론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민중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민생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결산안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중 논의된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조치와 개선책을 강구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에 대해서는 즉시 순정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